국민의힘 진종오의원 추가징계요청서

1. 청원인: 국민의힘 당원 및 애국시민 1만명 일동

2. 피징계요구인
 - 성 명: 진종오
 - 소 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現 당원권 정지 2년 상태)

3. 징계 청구 취지
피징계요구인 진종오에 대하여 기존에 내려진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구국을 위한 대여·대야 결사항전 국면에서 자행된 상습적 내부 총질, 당 지도부를 향한 악의적 여론공작, 당 기강 문란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인 '제명(除名)' 처분을 의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청구합니다.

4. 징계 청구 사유
가. '조작기소 특검 규탄' 장외투쟁 국면에서의 패륜적 내부 총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 당원은 이재명 정권의 치밀한 사법리스크 지우기 공작과 위헌적 '조작기소 특검법'에 맞서 전국 단위 장외투쟁과 원내 결사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의 명운이 걸린 비상시국에 온 당원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함에도, 피징계요구인은 대여 투쟁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오직 당의 공식 징계 절차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자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향해 무차별 내부 총질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당의 대여 투쟁 동력을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적전분열이자 이적(利敵) 행위입니다.

나. 검증되지 않은 폭로 편승 및 악의적 여론공작(지도부 흔들기)
피징계요구인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황경선 위원의 의혹 제기에 즉각 편승하여, 국회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를 향해 "국힘에 암적인 존재", "사직서를 내야 할 사람은 장동혁"이라며 극언을 쏟아붓고 지도부 총사퇴를 겁박하였습니다. 이는 당의 공적 의결 기구와 지도부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외부 무소속 세력과의 정치적 야합을 통해 당권을 흔들려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분탕 행위입니다.

다. 윤리위원회 만장일치 의결 정당성 및 우종환 전 부위원장 증언 정면 배치
과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은 특정인의 독단이 아닌, 당시 윤리위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공식적이고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특히 윤민우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사퇴했던 우종환 전 윤리위 부위원장조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일절 나오지 않고 해명을 거부한 한동훈은 다시 돌아가도 당연히 제명감이며, 구체적 정황과 근거가 명백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리위 내부 인사조차 제명의 당위성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징계요구인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여 '조작 징계'라는 허구의 프레임을 씌워 자당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라. 자숙 없는 상습적 해당(害黨) 행위 및 당헌·당규 위반
피징계요구인은 보궐선거 당시 탈당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지하여 이미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당원으로서 자숙하고 근신해야 할 처분 기간 중임에도 반성 없이 당을 흔드는 망언과 해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규 제20조(징계사유) 제1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2호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당의 단합을 저해하였을 때'에 정확히 부합하며, 기존 징계로는 교정의 여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

입니다.

5. 결론
거대 여권의 폭거에 맞서 목숨을 걸고 장외투쟁에 나선 전 당원의 처절한 피땀을 뒤로한 채, 고작 무소속 인사 한 명의 복권을 위해 당 지도부의 등에 칼을 꽂는 자는 국민의힘의 의원도, 당원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의 존립과 기강 확립을 위해 중앙윤리위원회는 피징계요구인 진종오를 즉각 '제명' 처분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6. 첨부 자료
[증거 1] 피징계요구인 진종오 국회 기자회견 극언 및 지도부 사퇴 겁박 보도
- 시사저널: 진종오 "장동혁, 국힘에 암적인 존재…사퇴서 쓰라"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619)
- 문화일보: 진종오 "장동혁, 암적 존재…사직서 내야"
  (https://www.munhwa.com/article/11630710)
- 사회잇슈TV 영상: 진종오 장동혁에 대한 공격
  (http://www.youtube.com/watch?v=8qbeCpe9vi4)

[증거 2] 우종환 전 윤리위 부위원장 "한동훈은 다시 돌아가도 제명감" 인터뷰 보도
- YTN 라디오: 우종환 "다시 돌아가면? '소명' 안 한 한동훈, 그래도 '제명'...구체적 정황"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120828028420)
- 파이낸스투데이: 우종환 "소명 안 한 한동훈 제명 당연"…황경선 '조작 징계' 주장 일축한 과거 발언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774)

[증거 3]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 규탄' 전국 장외투쟁 총력전 관련 보도
- 뉴스핌: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 반대' 전국 장외투쟁 예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1001241)
- 한겨레: 국힘, 매주 토요일 전국 돌며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86744.html)

[증거 4] 윤리위 내부 일방적 의혹 제기 관련 사설 자료
- 국민일보 사설: '조작 징계' 논란 불거진 국힘, 명확하게 해명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84630)

2026년 11월 12일
청원인: 국민의힘 당원 및 애국시민 1만명 일동
주 최: 자유법치연대 & 자유수호연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귀중